

주역에서 배우는 '길흉화복'에 임하는 자세

최효찬
칼럼니스트



역경에 처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고 쓴 책을 사마천은 '사기'에서 '발분저서(發憤著書)'라고 했는데 문왕이 쓴 '주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썼다. 사마천의 '사기' 또한 자신의 성기를 잘리는 궁형을 이겨내고 쓴 발분저서



'주역'을 쓴 주 문왕(文王)

다. 때로 울적할 때 '사기'와 같은 발분저서를 읽으면 의욕이 되살아난다.

문왕(기원전 12~11세기)은 개인적으로는 참혹한 일들을 겪었다. 문왕이 사람들의 신망을 점차 얻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은왕 주(紂)는 문왕을 유리(羑里)라고 불리는 감옥에 가두었다. 문왕은 감옥에서 주역의 패사를 지었다. 주역은 문왕이 7년 동안 감옥에서 곤경을 이겨

내며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왕은 큰아들이 주왕에게 잡혀 가마솔에 넣고 끓여 죽이는 팽형(烹刑)을 당했는데 문왕은 자식을 삶은 국을 다 마셨다고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문왕은 64괘사를 지어 주역의 체계를 만들었다. 문왕은 '이(履)괘'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심정을 괘사에 담았는데, '이호미(履虎尾)', 즉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격에 비유한다. 문왕은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천리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부질인(不咎人), 즉 호랑이에 물리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주역의 기본이론은 '음양론'이다. 음양론에 따르면 대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 하늘의 기운은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은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하늘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킨다. 하늘은 이것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그 변화를 다시 땅에게 주는 순환의 연속이다. 그 가운데 사람으로 대표되는 만물이 하늘과 땅의 교감작용을 받고 다시 자연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 교감 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자연의 도이며 그 과정을 64괘라는 틀 속에 넣은 것이 주역이다.

음양론의 변화이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로 요

약된다. 즉 우주 속에 벌어지는 변화상은 한마디로 한번 양이 되고 한번 음이 되는 과정의 순환이다. 음양의 변화이치는 하루로 치면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번성기가 가면 쇠퇴기가 오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道)'란 거창한 게 아니다. 한번 성하면 쇠한다는 자연의 법칙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다만 이때 음과 양이 반대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 배척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서로 상대가 존재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를 '대대(待對)의 관계'라고 하는데 서로 달라서 맞서고 다르기 때문에 기대는 관계다.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말이다.

주역의 또 하나의 논리는 '극즉반(極即反)'이다. 하나의 상황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상황 전환의 논리다. 즉 "큰 번고를 만나 극도에 달한 뒤에는 통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주역은 점의 결과가 길흉으로 표시되지만 길흉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길흉이란 인간의 행동에 따라 길한 상황에서 흉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고 흉한 상황에서 길한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서구의 주역 전문가인 루 매리노프는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책에서 "주역은 운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책"이라고 강조한다. 즉 주역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역에서 점을 쳐서 만약 64괘 가운데 좋지 않은 점괘가 나왔다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주역은 설사 나쁜 괘가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나 나쁜 운명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명이 좋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신무방역무체(神无方易无體)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중국의 현자로 불린 남회근은 '주역계사강의'에서, 첫째는 덕(德)이요, 둘째는 명(命)이요, 셋째는 풍수(風水)요, 넷째는 음덕(陰德)이요, 다섯째는 독서(讀書)라고 풀이한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덕목을 가장 우선시하시지요?